

青山에 살으리았다

國樂에 살으리았다

방영기 지음

이보계들,
‘선소리 산타령’
한마당
펼쳐 봅시다!



國樂篇

제1부 발아(发芽)

1. 출생과 배경 • 8
 - 1) 마을의 배경
 - 2) 집안의 배경
2. 아버지의 영향 • 14
3. 아버지의 반대 • 20
 - 1) 아버지의 반대
 - 2) 아버지의 죽음
4. 배움의 길 • 28
 - 1)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 2)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워서 아는 이가 그다음이요
5. ‘무용’에서 ‘소리’로 • 43
6. 늘 돈이 고팠던 아이 • 47



제2부 화봉(花峰)

1. 아버지의 변심 • 54
2. 가르치는 일의 시작 • 64
 - 1) 군 입대
 - 2) 국악 종합 예술원

제3부 만개(滿开)

1. 지역 문화를 발굴하다 • 74
 - 1) 지역 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 2)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2. 명창(名唱)의 반열에 오르다 • 96
3. 봉사하는 예술인 • 100
 - 1) 경로잔치
 - 2) 신한국인상 수상
 - 3) 마을회관 건축
4. 구음(口音) 악보 • 120

政治篇

1. 정치에 발 담그기 • 135
2.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다 • 141
 - 1) 대구예술대학 입학
 - 2) 대학 강단에 서다
 - 3) 박사 학위를 받다
3. 지역과 예술을 위한 정치 • 150
 - 1) 이매 지하철역 건설
 - 2) '성남아트센터' 건축
 - 3)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4) "정치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다"
4. 주요 의정 활동 • 190
 - 1) 이매 전철역사 건립
 - 2) '성남아트센터' 건립
 - 3) 환경, 문화, 소방 공무원, 이민자 가족에 대한 관심
 - 4)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5) '남한산성' 보존을 위한 열심
 - 6) 사기막골 근린공원 – 휴식 공간이자 교육장(教育場)
 - 7) 도촌 지구~공단로 간 도로 둔촌터널 공사
 - 8)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監査)의 본



4. 배움의 길

1)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 배우는 것을 기뻐하였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논어〉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學而知之者次也，困而學之，又其次也，困而不學，民斯爲下矣

(공자왈 생이지지자상야, 학이지지자차야, 곤이학지, 우

기차야, 곤이불학, 민사위하의 :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
가 제일 낫고, 배워서 아는 이가 그다음이며, 어려움을 겪
고서야 배우려는 이는 또 그다음이다. 어려움을 겪고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아래이니라)

‘배움’이라는 단어에는 내게 인절미에 묻어 있는 콩가루처럼
참 많은 감정이 묻어 있다. 늦가을 저녁쯤에 시골의 개천 위로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시야를 가리면서 ‘과거’라는 이
름 속에 갇혀 있는 오래된 뒷길로 끌어가기도 한다. 나 역시 배
움의 기쁨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양파껍질 벗기
듯이 하나씩 배워 갈 때의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가!
다만 도전이 되는 환경 때문에, 배우는 것이 순수하게 기쁜 일
이 되지 못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에 직면하였다.

내가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악인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어린아이라도 국악을 배우는 것이 전
혀 어렵지 않다. 거기에 더해, 눈에 띄는 재능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금방 TV 프로와 광고에 등장하여 소위 유명세를 타게 되
는데, 그의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국악을 더 편하게 배우긴 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일찍 매스컴과 주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을까? 반대는커녕,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명창(名唱)’의 꿈을 향해 기운차게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장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의 영향이 너무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재능도 상품화되기 일쑤다. 부모들이 앞 다투어 고액 과외로 가르치기도 하고, 좀 한다 싶으면 어느새 TV 장기 자랑에 내보내어 얼굴을 알리는 데 한껏 공을 들인다. 또 방송사마다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런 행위들의 결과가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주는 영향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변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느 신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리를 하려면 가슴속에 한과 애틋한 감정이 숨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가슴이 없는 사람은 소리를 있다고 말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공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나는 그만 한 사람은 못 되지만 “어려움을 겪고서야 배”운 것은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서도 배우려 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두 번째인 “배워서 아는 이”가 되었으니 공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아온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배움은 많지만 배움의 질이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냥 “배워서 아는 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워서 아는 이가 그다음이요’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에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워서 아는 이가 그다음이요

내 어릴 적 이매리와 인근 지역에서는 양잠업과 논농사 외에 도 수박, 참외, 토마토 농사를 주로 지었다. 이들 가운데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은 ‘지무시’라고 불린 8톤 트럭에 실려 남대문 시장이나 경동시장에서 경매로 팔려 나갔다. 지무시를 얻어 타고 밤 10시~11시쯤에 출발하면 다음날 새벽 4시~5시쯤 시장에 도착하였다.

당연히 시장 어른들은 지무시에 타고 있는 나를 보고 놀랐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새벽에 차를 얻어 타고 서울에 온 것 이 걱정되어 “너, 어떻게 왔니?” 하고 물으면, “남산 KBS 방송국에 가려고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 “방송국에 가서 뭐 하려고?” 하고 다시 물으면, “민속 백일장 보려고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저 높은 곳이 방송국이다.” 하고 손을 들어 남산이 있는 쪽을 가리켜 주었다. 지금의 서울예술대학이 있는 자리였는데, 뛰어서 골목길을 굽이굽이 30분을 가야 했다. 남산 KBS 방송국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던 높은 장소처럼 어린 시절 나의 목표요 희망이었다.

방송국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당시 유명한 만담꾼이었던 장소팔, 장소희, 두 분이 진행하는 만담과 민

속 백일장(지금의 ‘노래 자랑’)을 녹음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이 민속 백일장의 심사 위원 중 한 분이 나중에 나에게 소리를 가르쳐 주신 벽파 이창배 선생님이시다. 방송국을 처음 찾아간 이때의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인터뷰]

산타령 무형 문화재 이창배[李昌培]

“요즘의 젊은이들은 너무 성급해요. 예술을 하는 것도 1년을 못 참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민요라도 3년 이상은 꾸준히 참고 배워야 제 맛을 알게 됩니다.”

선소리 산타령의 무형 문화재 이창배 씨는 우리 가락에 대한 현대인의 자세부터 나무란다.

“수심가(愁心歌) 같은 좀 어려운 노래는 창법부터가 요즘 노래하고는 다르죠. 대중가요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우리 가락은 뱃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배에 지그시 힘을 주고 배꼽 밑까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토해 내야 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을 제대로 하려면 숨이 길어야 합니다.”

20대 초에 취미로 배운 소리가 평생의 사업이 됐다는 이씨

는 그래서 40여 년간 우리 가락의 멋을 찾는 외길 인생을 살아 왔다.

“어려서부터 민요를 듣고 자랐죠. 제가 태어난 옥수동에는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노는 움막이 생깁니다. 이곳에서 어른들은 장기를 두고 짚신을 삼으며 노래도 부릅니다. 그때 어른들이 부르던 우리 민요가 어찌나 듣기 좋았던지, 결국 청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배웠죠.”

시조, 가사, 잡가의 권위자이며 명창인 최경식 씨로부터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이씨는 원범산, 이주환 씨를 거치면서 모두 8년간 본격적인 수업을 받았다.

그는 직접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요를 채집하여 정리하는 데도 손을 대어 〈가요집성〉, 〈국악대전집〉, 〈민요3천

리〉, 〈한국가창대계〉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사의 사설이 너무 제각각이었어요. 구전되어 오면서 변질된 탓이지요. 그래서 명창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베끼고 정리했습니다.”

요즘의 민요 가사 중 80%가 자신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이씨는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경서도창전수소’(京西道唱傳修所)를 차려 놓고 민요 보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향신문 1978.4.6.)

1년 뒤인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왕십리에 사시는 고모 집에 갔다가 혼자서 남산 방송국에 갔었다. 그때도 아침부터 걸어서 갔다. 돈도 없고 배도 고픈데다가 검정 고무신을 신어 촌놈 티가 풀풀 났다. 경비 아저씨가 “뭐 하러 왔느냐?” 하고 묻기에, “민속 백일장 보려고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아저씨는 “너는 그거 할 애가 아니다.” 하고 말했다. 내가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자, 경비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있어라!”

사회자가 심사 위원들을 소개하는 중이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그들(심사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인지를 알게 되었다.

방송국을 구경할 때는 좋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길이 까마득하였다. 배는 고픈데, 기다란 차가 있어서 물어보니 ‘전차’라고 했다. 성남으로 가려면 청량리행을 타야 했다. 청량리에서 마장동으로 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버스는 저녁 6시가 막 차였고, 이 차를 타면 저녁 9시~9시 반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버스가 끊어지면 걸어서 오다가 차가 오는 게 보이면 손을 들어서 얻어 타곤 했다. 그래도 천호동까지는 버스나 얻어 탈 수 있는 차가 있었다.

천호동에서 강나루 다리를 건너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리

가 생긴 것은 70년대 초였고, 그 전에는 버스가 한강을 건너다
녔다. 요새 사람한테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보
다 강의 폭이 넓고 물이 얕았기에 가능했다. 처음 생긴 다리는
좀 독특했다. 상판만 있고 난간이 없는데다가, 비가 많이 오면
상판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상판과 함께 버스가 한강에 빠
지기도 했다.

그 시대에는 팬티를 안 입은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
들은 모두 겉옷을 버스 손잡이에 걸어 놓고 내려서 강물에 빠
진 버스를 밀었다. 이를 본 강 건너 주민들은 소를 내왔다. 뚝
방에서 소와 버스를 밧줄로 매든가, 아니면 마차에 아이를 태
우고 마차와 버스, 마차와 소 명에를 밧줄로 매고 소가 끌어가
게 했다. 버스에 탔던 청년들과 인근 주민들이 합동으로 펼치
는 ‘버스 구출 작전’이 숨 막히게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버스
안에 있던 나는 하필 그날 고모님이 박카스 상자에 담아 준 병
아리를 4마리를, 장맛비로 버스 안에는 물이 차오르는데 병아리를
를 안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곤란한 상황을 주민들
이 합심 협력하여 타개해 나가던 이 모습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선명히 각인되어 잊히지 않는다.

흔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성을 비교한 말이 한국인의 입

에서도 조소적으로 회자되곤 한다. 즉 일본인은 벚꽃처럼 연합이 잘 되는데, 한국인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보여 주었다. 내가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힘이 되어 주는 청년들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돋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 그들은 ‘강 가운데 불보듯이’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협력하여 도움을 베푸는 데 깨어 있었다.

우리의 민족성을 자기 비하(自己卑下)식으로 평가하는 말은 ‘조센징’이라는 말을 경멸적으로 사용하던 옛 시대에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주입식으로 유포된 것이다. 광복(光復)이 된 지 반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이런 표현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어린 나의 눈으로 본 것은 강 가운데서와 뚝방에서 벌어진 놀라운 ‘협력’이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을 아름답고 따뜻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 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대서사시를 읽는 것 같았고, 피카소의 어떤 작품보다도 위대한 그림

이었다.

홍수가 날 때는 강나루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 나는 경험을 통하여 굴뚝이 가장 따뜻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의 집 굴뚝 옆에 기대어 잠을 자곤 했다. 물론 집과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집에서도 내가 어디에 뭘 하러 갔으며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셨다. 손자를 아끼셨던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등불을 들고 모란시장까지 찾아 나오시곤 하였다.

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사를 지내거나 야경꾼들이 순찰 시간을 기다리면서 국수 내기 뻥을 치고 있다는 표시였다.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나도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밥이 생겨서 좋았다. 야경꾼들은 내가 춤과 소리를 한다고 하면, ‘집안 망할 놈’이라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국수 삶은 따뜻한 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오늘은 무얼 배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춤추면서 소리를 하고 나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하나씩 주었다. 추워서 뜨거운 채로 그것을 받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다 보면, 나일론 바지

의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뚫어졌다.

장지동 비석거리에는 공동 우물터가 있었다. 때는 초겨울이었다. 거기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힘이 없어 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 거꾸로 박혀 버렸다. 다행히 가물 때라 물이 얕았고, 한 손이 두레박에 걸려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물을 뜨러 왔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야경 방(지금의 마을회관)에 알렸고 야경꾼들이 군대 후레쉬를 가져와서 나를 꺼내 주었다.

1. 지역 문화를 발굴하다

1) 지역 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내가 어렸을 때의 성남에는 기름 짜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와 나는 들깨와 참깨를 이거나 등짐을 지고서 판교로 갔다. 판교에 가면 어른들이 줄다리기를 하려고 동아줄을 꼬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때 가 1960년대 중반이니까, 내 나이 7~8세쯤부터 이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성인이 되어 제대한 후에 하루는 성남문화원장이었던 조명천 씨가 나를 찾아와서는 지역 문화를 발굴하여 하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 생각이 내게도 좋아 보였으므로, 어릴 때 본 것에 착안해서 사라져 가는 지역 문화들을 하나씩 발굴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출다리기’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 중 하나였다.

나는 제3회 경기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 때에 낙생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출다리기’를 가르쳤다. 약 370명이 이 출다리기를 배웠고, 약 80명에게는 농악을 가르쳤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20일 만에 속성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결과는 좋게 나와서, 성남시는 36개 시군이 참가한 경연 대회에서 장려상 1호를 받았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얻어 낸 첫 수상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실 이 일을 하는 데도 조명천 씨가 한몫을 하였다. 1983년 겨울에, 앞에서 언급한 나의 무료 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조명천 문화원장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경기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무료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성남시는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웠다. 이때가 제3회 대회였는데, 1회와 2회는 예산 문제로 아예 출전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나의 고향에서 하는 일이라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1985년 10월 '성남 집터 다지는 소리'로 경기도 향토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고재복 당시 이매동장과 나, 야탑동 주민회 '최선봉' 씨, '김영훈' 농촌 지도자 연합회장

첫 수상 기록을 낸 다음 해인 1985년에는 '지경 다지기'라고도 하는 '성남 집터 다지는 소리'를 120명의 노인들에게 가르쳐드려서 역시 장려상 1호를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성남시 최초로 경기도 향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에 외래문화가 많이 유입되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였지만, 반대로 우리의 토속 문화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

다.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를 발굴하여 시연할 때에 일 반인이 아니라 학생들을 택한 것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 주려는 뜻이 깔려 있었다. 아직 백지 상태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찍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인상이 강하게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1983년에 발굴하였다. 이 소리의 이름이 처음 발표될 때는 ‘성남 집터 다지는 소리’였다. 그러다가 성남에 있는 각 면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발굴해 낼 계획을 세우고 나서, 돌마면 이매리에서 유래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로 이름을 바꾸었다. 낙생면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가 발굴되었다.

앞으로 더 발굴해 내야 할 소리들이 남아 있다. 중부면에서는 숯골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릴 때에 하는 소리이다. 대왕면에서는 봉화를 올리는 민속놀 이를 만들 예정이다. 이것은 천림산에 있는 봉화터에서 과거에 봉화를 올리던 장면을 놀이로 재현하는 일이다. 또 탄천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에는 저수지가 없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보를 막아야 했는데, 이에서 착안한 보막이 놀이를 만들 예정이다.

계획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 낼 수만 있다면, 내가 나고 자란 이 지역에 진 빛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세계 어느 나라나, 작게는 각 지방마다에도 고유의 문화가 있다. ‘이 세계’가 ‘이(齒) 세 개’를 가리킨다는 어린아이들의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버렸다. 한창 ‘세계화’ ‘국제화’를 너나없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던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 한국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세계화 속으로 한참 들어 와 있는 것 같다. 인터넷은 세상을 더욱 오밀조밀하게,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하는 ‘기름 짜기’ 놀이처럼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 개인과 개인 사이를 밀착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은 것 같다. 물론 이런 세계화를 통하여 얻는 것도 많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자기의 고유의 것을 찾고 지키려는 노력도 강한 힘을 받고 있다.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물고기의 헤엄처럼 ‘부질없는 노력’으로 비칠 수도 있었던 것이 지금은 꽤 큰 물줄기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더욱이 세계화가 어느 정

도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세계화된’ 부작용 때문에 이런 노력은 오히려 큰 호응을 얻기도 한다. 세계화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뒤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잊게 했는지를 이미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유네스코의 노력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유네스코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 나라나 지역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한다. 우리나라에는 수원의 화성(華城)과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 그리고 석굴암과 불국사가 지정되어 있다.



미국 하와이 컨퍼런스 예술대학에서 공연



딸(방글)과 함께 중국 남경예술대학에서 공연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 유산 위원회는 세계 각 나라와 지역의 무형 문화를 평가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하여 보호한다. 유네스코는 우리 문화 가운데 2001년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을 시작으로 하여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 당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년), 가곡(歌曲), 대목장, 매사냥(이상 2010년), 택견, 줄타기, 한산 모시 짜기(이상 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 문화(2013년)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하더니 드디어 지난 2014년 11월 27일에는 17건째로

‘농악’을 인류 유산으로 확정했다. 이 작은 나라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17건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경사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아리랑’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일찍이 독일의 문호 괴테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갈파했다. 독일로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던 독일어가 문호 괴테의 출현으로 일약 국제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괴테가 한 말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세계 문화 유산을 선정하는 이유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현저히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말은 결국 가장 민족적인 것에 세계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서, 괴테의 말에 확인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그러면, 더 넓은 세계관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도 전혀 없었던 옛날, 농악대에서 상모를 돌리던 한 필부(匹夫)나 김장 담그는 동네 아줌마가 만든 작품이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현저히 나타낼 수 있었을까? 아리랑을 부르던 아낙네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노래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을 생각을 했을까?

사람에게는 외모처럼 다양성과 보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



성남시와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심양시의 ‘한국주’(한국인 축제 기간)
국악 공연

다는 데 답이 있다. 이성과 감성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 만, 그것이 지닌 보편성은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벌거벗은 부족들의 단순한 춤과 노래에도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창밖만 내다보면서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이웃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의 주인인

우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화’라는 대도(大盜)가 지구촌 안에 있는 온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양성’도 훔쳐가고 ‘정체성’(正體性)도 가져가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무엇을 도둑질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집 안을 둘러보자. ‘성남’도 둘러보고, ‘파주’도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서 공연 후에 딸(방글)과 함께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일본 미와자키 관현악단과의 협연. 지휘자는 ‘박용준’

둘러보고, ‘용인’도 둘러보고, ‘한국’이라는 큰집 안의 곳곳을 살
샅이 찾아보자.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재료를 발
견하면, 우리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작은집들이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큰집도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세계화’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떠
내려가지 않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한국민(韓國民)으로서 뿌리 있는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나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해 왔다.

앞으로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해외로 나가서 널리 알리
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일을 하
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해외 파
견 국악 교사’를 국가적으로 양성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이것
은 소리 하는 나 한 사람의 소망일뿐이지만 머잖아 꼭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
을 맺어 ‘세계 문화유산’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을?

3. 지역과 예술을 위한 정치

도의원 시절에 한 언론 인터뷰(데일리안 2006.11.24.)에서 나의 의정 활동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정착·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쳐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예술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살고 싶은 중원구, 향기 있는 성남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나의 지역구인 고향에 대한 약속과 다름이 아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

상정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 유세 때에, 자기가 당선되면 고향인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하였다.

나도 5대째 고향에 살고 있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듯이,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국악을 향해 발산시킨 열정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내가 이쪽으로 남다른 포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것이다. 사실 나의 일생은 ‘예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지력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에도 예술을 향한 열망과 실천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예술은 내가 사는 집처럼,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짓고 꾸미고 가꿀 수 있는 나만의 따뜻한 영역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강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활동은 고달프고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들의 뜻을 펼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 그때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 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갈 때와 같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예술의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이매 지하철역 건설이나 성남 아트센터 건립,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이 모든 것들은 정치력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북채를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공된 지금은 어떤가? 분당구 이매역 옆에 서 있는 저 <성남 아트센터>보다 성남시에서 예술인들이 인정과 지원을 넉넉히 받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나는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정치가 가진 법과 제도와 행정력을 사용하면 예술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재력가가 있었다. 그런 지원은 예술가가 자기 일에 몰두하여 재능을 더 잘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지원을 하는 사람도 예술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하고 멋진 작품을 감상하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요점은 이것이니, 곧 정치와 예술 사이에 원만한 협력 관계

가 이루어질 때 서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성남은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가들이 모여 드는 도시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도시 전체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처음 정치에 발을 담그려 했을 때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잠시 정치를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는 나 자신도 생각의 폭과 깊이가 달라져 있었다. 정치를 올바로 대할 수 있는 나의 관점이 서 있었던 것이다. 잠시 정치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내게는 도리어 약이 되었다.

1) 이매 지하철역 건설

대구예술대학교를 다니던 1998년 초였다. 정순태 회장과 변재문 씨, 김경수 씨, 김판도 씨, 유후열 씨, 이희주 씨 등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서 이매 지하철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고향이니까 당신이 시의원에 나오라는 것이었다. 마침 종지회(이매동에 있는 종지봉에서 새벽 운동을 하는 노인들의 모임) 어르신들도 나를 불렀다. 이분들은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로 내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동정 자문 위원장으로 일할 때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나를 호의적으로 지켜보셨다. 이분들 역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지하철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은 매우 강하였다. 1998년이 되기까지 그럴 만한 사연도 있었다. 애초에 신도시계획도에는 지하철역이 분명히 있었지만, 1992년에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 입주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지하철역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1990년쯤으로 기억하는데, 한국통신 앞에 지하철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혹시 싶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데모를 시작하였다. 그때가 1993년이었다. 동신아파트 앞에 모여서도 하고 국방부로 찾아가서도 하였는데, 나 역시 주민들과 같이하였다. 이 데모는 일시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었다. 오성수 시장도 이때 지하철역 건설을 공약하였지만, 동신아파트 앞에 H빔만 잔뜩 쌓아 놓고 착공은 하지도 못했다.

당시 동아일보(1995.5.28.)가 우리 주민들의 시위를 기사화 한 것이 있어서 소개한다. 지금 읽어 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 때는 참가자들 모두가 정말 진지했다. 기사의 제목은 “이매역 설치 요구 시위, 분당 매송 주민 500명”이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매송동(이매 2동) 주민 500여 명은 27일 오후 3시 이매동 국민은행 앞 공터에서 이매역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시위에서 “서현역과 야탑역 간의 거리가 4.3km나 떨어져 있어 이 일대 1만여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20분 이상 걸어야 한다”면서 이매역을 빨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당초 설계에는 있던 이매역이 누락된 것은 토개공이 이매역사 설치 예정 지역을 상가와 업무용지로 분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말한 여러 분들이 나를 찾았던 1998년에는 4명이 시의 원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나오면 자기들은 나오지 않고 나를 단일 후보로 밀어 지역 일꾼을 만들기로 4



성남시의원 당선증 전달식에서

명이 서로 약정하였다. 일꾼이 할 일은 우선적으로 이매 지하 철역을 만들어서 고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중책을 짊어지고 1998년에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그때 성남시장 후보로는 김병량 씨와 오성수 씨가 나왔는데, 김병량 씨가 나를 찾아왔다. 여기서 그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먼저 말해야겠다.

그때는 오성수 씨가 시장이었다. 지역의 여러 예술인들과 함께, 오 시장이 예술회관을 지어 준다고 한 장소인 중원구 황성

공원에 25인승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회관을 지어 준다는 장소였다. 그곳에는 성남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슨 … 골짜기에 예술회관을 지으면 누가 구경하러 오나? 접근성이 용이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지! … 쓰레기 매립장에다 짓는다면 그건 민방위 교육장 아니냐? 지반도 약한 데다 … 선거 홍보용으로 예술인 농락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이 말을 오 시장이 듣고서는 “누구냐?” 하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이 “(성남시) 국악 지부장”이라고 대답했다. 나도 이 말을 들었다. ‘지어 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 하는 식의 태도였다. 내려갈 때는 기분이 나빠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내려갔다. 이 사건은 예술회관을 지으려면 꼭 시의원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강화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김병량 씨가 나를 찾아온 시점으로 돌아가겠다. 김병량 씨가 찾아온 것은 자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매 지하철 역과 예술회관을 짓는 것, 그리고 문화 예술 발전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병량 씨가 시장에 당선되자, 이매 지하철역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막중한 공사의 추진 위원장을 맡았다. 먼저 H빔 세울 자리를 측정해야 하였는데, 문제는 지하철 운행은 그대로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 시간이 끝나야 사람들이 야탑역에서 레일을 타고 들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H빔 세울 자리를 측정하는 데만 6개월이나 걸렸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자, 주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미 한 번 속았던 주민들이었다. 그래서 나와 지하철 공사 소장이 주민들과 같이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확인시켜 주러 들어갔다. 그러자 정말 굉장히 놀라운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얼마나 흙을 퍼냈던지 땅 속에 지상(地上)에 서나 볼 수 있는 허허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일생에 다시 볼 수 없을 이 풍경을 보고는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방영기는 믿어도 돼! 잘하고 있으니까!”



분당선 이매역 개통식(2004.1.16.)

재경부 장관이었던 강봉균 씨가 분당 갑 지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와서 이매역사 건립에 큰 힘이 되었다. 애초에 지하철역 총공사비용으로 세운 예산은 150억 원이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3~4년 걸리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작용하여 총공사비가 650억 원 들어갔다.

2) '성남아트센터' 건축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이매 지하철역이 완공되자, 다음으로 모든 성남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예술회관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착공식 날 태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느라고 징과 팽과리를 치면서 난리를 피웠다. 공사를 하면 시끄러울 테니까,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소란 통에 착공식 고사를 지내자니 김 시장의 기분도 좋지 않아 보였다.

그 와중에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부터 고사를 지내겠습니다! 축문을 읽을 건데, 잘못하면 주당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벼락을 뜻하는 “주당”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말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 중에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희한하게도 갑자기 소란이 멈추더니 조용해졌다. 그렇게 주위가 조용한 가운데서 고사를 끝낼 수 있었다. 고사가 끝나고 2시간 후에 시장이 나를 불렀다. 학부모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난들 알 수 있겠는가?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나 보죠.”라고만 말해 주었다. 기독교인인 김 시장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신기해했다.

애초에 시에서는 예술회관 부지로 1만여 평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지만 의회 상임위에서 10만 평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그전에 김 시장하고 적당한 장소를 답사해 놓았었다. 바로 지금 예술회관이 세워져 있는 장소이다. 그때 김 시장에게 태원고등학교와 전투 경찰 막사를 이전시키고 여성회관까지 한데 묶어서, 행정타운 하듯이 예술타운 형태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비록 학교를 이전시키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1200평 모자라는 4만 평으로 버젓한 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예술회관은 지금의 ‘성남아트센터’로 명명되었다.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는 이 예술회관이 “날로 증가하는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오페라, 연극, 음악회, 전시회 및 대중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실제로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란 오명을 씻고, 100만 성남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오래된 갈증을 깨끗이 풀어 주기에 충분할 만큼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이 건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남아트센터' 개관식 장면(© 2005 by 성남문화재단)



개관식 축하 공연(© 2005 by 성남문화재단)

- 오페라하우스(대극장 1804석), 콘서트홀(중극장 994석), 양상블시어터(소극장 398석)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규모의 공연을 짜임새 있게 소화해 낼 수 있다.
- 오페라하우스에는 전향과 음색을 조절하는 어쿠스틱 배너 커튼과 잔향 시간을 조정하는 음향 보정 장치가 설치되어 교향악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
- 콘서트홀은 정통 음악 공연장으로 연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무대 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양상블시어터는 연극과 소형 뮤지컬, 현대 무용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 극예술 무대로, 패션쇼에서처럼 T자형 무대가 설치되어 관객이 최대한 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 2개 동 3개 실의 미술관에서는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음악·미술·무용·유아 음악실 등 4개 강의실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성남일보 2005.10.12.)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개최된 공연과 초청된 예술가,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등의 이미지를 담아 기념우표를 제작했다.



3)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김 시장과 한 세 번째 약속이었던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었다. 이것은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문화 창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99년 1월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토의할 때에 윤승호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였다.

“우리 시는 시제 실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

93만 명을 수용하는 큰 도시로 변모하였으나 거대도시로 발전한 만큼의 문화예술 분야 성장은 미흡하여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 및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음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우리 시를 낭만과 멋이 어우러진 뿌리 깊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지방 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재 및 향토 유적 전승 보전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내가 다음과 같이 조례안 제정을 요청하고 동의하였다.

“시에서 그동안 문화예술 예산을 전혀 안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연중행사로 그치는 제한적인 예술 사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발전 기금은 미래의 성남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악을 합니다만, 국악인들 공연하게 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미래의 성남시의 넓은 밑그림을 그리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쓰이는 기금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한꺼번에 25억 원을 만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매년 5억 원 해서 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성남의 우리 후손들에게, 21세기상에 맞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럴 수록 나중에는 기금과 사람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넓고 멀리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토론된 내용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이 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생활고 때문에 국악을 하는 것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전통의 소리가 언젠가는 아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따라서 예술, 특히 국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한류 열풍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소리는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된 일 한 가지는 향토 예술인을 발굴해 내는 일이다.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는 예술인, 향토 예술인들이 살아나야 한다. 예술인이 부침(浮沈)이 많은 세상의 인기 위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관심하였다. 앞에서 1981년에 성남문화원과 함께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를 발굴하여 1984년에 열린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솔선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시에서는 향토 문화 보존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도 없었다.

(報 告)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158
------------	-----

제출년월일 : '99. 1
제 출 자 : 성남시장

□ 제안이유

-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및 시설을 지원한다.(안 제1조)
- 나. 기금은 성남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안 제2조)
- 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거나 덕망이 높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한다.(안 제5조)
- 마.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안 제14조)

(第70回~企劃總務委第1次)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그 보급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거나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第70回~企劃總務委第1次)11

②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예술담당으로 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기금운용의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第70回~企劃總務委第1次)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삶에 즐거움을 더해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그저 묵묵히 벽돌을 쌓고 나무를 깎고 망치질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들겠는가! 하지만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보면서, 내 손으로 집을 지어 내 집을 갖게 되고 내 집에서 살고,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또 ‘선소리 산타령’을 들으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잊고 지냈던 ‘자연이 주는 친근한 선물’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현실에서 부닥치는 잔잔한 불만 불평들을 털어 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를테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을 현미경에서 망원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예로부터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훌륭한 평가를 받는 군주들은 문화예술의 이런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이 분야에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문화예술의 꽃이 가장 활짝 피어난 시기가 그 나라의 국운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예술인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성남이 예술의 혜택

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특히 ‘성남 아트센터’ 건립은 예술인들과 관람자들이 언제든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고정된 장(場)을 마련하였다는 의미에서 크게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또 이 일은 정치와 예술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실감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듯이 각각의 시대마다 예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예술인들이 ‘예술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을 해 보고 싶다. 내가 어릴 적에는 예술을 접하면서 삶의 목적을 세웠지만, 이제는 예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함으로써 남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4) “정치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다”

언젠가 어느 언론에서 하는 인물 취재(이글레이) 2012.8.13.
“인물 취재”)에 위 소제목을 기사의 제목으로 하여 나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그 기사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기사는 먼저 나의 정치 입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석사 학위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방 의원은 7대 도의원, 3대 성남시의원을 역임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서 기사는 나의 의원관(議員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것은 두 단어로 ‘소신’과 ‘신뢰’로 요약할 수 있는 나의 정치관(政治觀)이다.

[“시의원은 감독관이다. 시민들이 주문하는 것을 요리하는 요리사는 공무원이다. 짜장면에 완두콩을 5개 넣어야 하는데 4개만 넣는다면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독하는 역할이 시의원에게 있다. 또한 공약을 내걸고 의원이 되었다면 소신 있게 공약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도·시의원 역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였다. 공약 세 가지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된 두 가지 공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에서 경기도의회 주최로 열린 자선 공연에서 방영기 의원이 장구를 치며 국악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딸 ‘방글’과 피리는 이길영 씨(연합뉴스 2009.11.6.)

[우선 열악한 환경의 문화 사업을 위해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례로 만들어 성남시에서 25억 원을 조성하고, 방 의원이 성남시 예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25억 원을 조성하여 총 50억 원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만들어 문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남아트센터 건립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성남시를 공공근로 사업

부문 전국 1위로 끌어올렸다.]

남은 한 가지는 지역사회, 좀 더 개인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나의 ‘고향’에 관한 공약이다. 나는 국악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삶이 잉태되었던 나의 고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우의 머리가 저 살던 굴 쪽으로 향하듯이, 나의 고향은 나의 모든 문화와 정치 활동에서 변치 않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철 역사를 건립하였다. 그에 더하여 각 주민센터에 공실로 비워져 있는 2층 회의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의 집을 개설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문화센터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방 의원은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 주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더하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신뢰성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역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겠는가?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신뢰성’은 조
직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
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
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약을 선정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
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는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기사는 지역 특성
에 맞춘 지역 축제를 발
굴하려는 나의 노력과 성
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
였다.



임태희 씨는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
이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이며 고용노
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
했다. 그는 나와 같은 성남시 출신이
며, 양영중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그
는 청렴하고 성실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사(紳士) 국회의원
에게 주어지는 <백봉 신사상>을 4번
이나 수상한 사실이 그 점을 잘 보
여 준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성남시의 지역 민속 문화를
발굴해 내어 지역 축제로 발전시켰다. 성남시는 과거의 4
개 면이 합쳐져서 생겨났다. (구)낙생면 소재지인 판교의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 (구)돌마면 소재지인 이매동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지역 민속 문화로 만들었던
것이다. 향후로 중부면에 ‘숯골 축제’, 대왕면에는 ‘천림산
봉화 축제’를 민속 문화로 만들어서 지역의 민속 문화가 계
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사는 제도권에 대한 나의 바람과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기술하였다.

[방 의원은 “우리의 전통 소리를 초·중·고등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지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전통문화와 정신과 전
통 예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리
고 잘못되어 가는 문화는 바로 세우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발
전하도록 예술인이나 정치인으로서 이바지하겠다.”라고 포
부를 밝혔다. 전통문화를 지키고 문화 사업의 발전에 힘쓰
는 방영기 의원의 정치 행보는 서양 문화에 젖어 있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일로 보인다.]